

‘사전 컨설팅 감사제’ 시행 10년…실효성은 ‘글썄’

광주 5개 자치구 연평균 20여건 활용…감사결과 논란 부담
‘적극행정’ 유도 취지 벗어나…“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을”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신속한 행정처리를 돕고자 마련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났지만 홍보 부족과 행정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실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광주 5개 자치구 등에 따르면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능동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

행정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이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감사원 또는 소속 기관의 감사부서에 사전 자문을 요청하고 행위의 적정성과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의 사후 징계 중심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 판단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책임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감사 방식이다.

특히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와 법령이 불명확해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사전 컨설팅 제도가 사용되고 있다.

단순한 법적 자문이나 형식적 절차가 아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민원 해결의 가능성이 높이는 실효적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각 자치구의 활용도는 낮은 상황이다. 실제 최근 5년간(2020~2024년) 5개 자치구에서 제도 이용 건수는 총 113건(동구 12건, 서구 23건, 남구 12건, 북구 18건, 광산구 48건)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32건(동구 2건, 서구 5건, 남구 0건, 북구 3건, 광산구 22

건), 2021년 39건(동구 3건, 서구 5건, 남구 6건, 북구 7건, 광산구 17건), 2022년 33건(동구 1건, 서구 2건, 남구 6건, 북구 7건, 광산구 17건), 2023년 14건(동구 2건, 서구 4건, 남구 3건, 북구 3건, 광산구 2건), 지난해 18건(동구 4건, 서구 7건, 남구 1건, 북구 2건, 광산구 4건) 등이다.

이처럼 이용률이 낮은 것은 홍보 부족과 제도적 책임성 미흡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또 감사 결과에 따른 공정성·신뢰성 저하가 논란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부담감 등이 제도 이용을 주저하는 이유로 꼽힌다.

A직원은 “감사에 대한 부담 탓에 편한 일을 만들기보다는 ‘하던 대로 하자’는 식의 업무처리를 하기 마련이다”며 “절차가

복잡하고 혹여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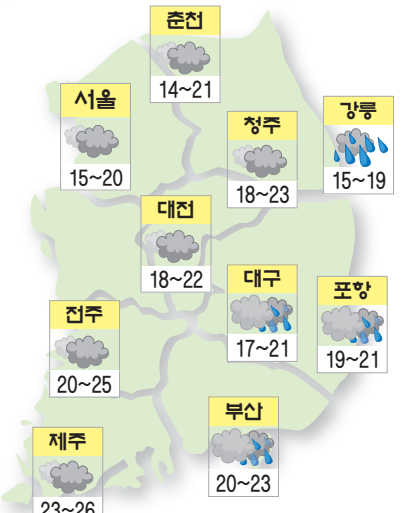
한편, 각 자치구는 공직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적극행정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목표로 제도 운영과 교육, 사례 공유에 중점을 두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 제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행정 내부계시판에 타 시·군·구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있다.

한 자치구 감사실장은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 또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 데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아침 06:37 달달 ---:--
☀️ 아침 17:59 달달 14:15



광주	☁️	20~25
목포	☁️	21~23
여수	☁️	21~23
순천	☁️	21~24
구례	☁️	21~24
광주	☁️	21~24
매남	☁️	21~24
임도	☁️	21~25
흑산도	☁️	19~23
전남	☁️	20~25
고흥	☁️	20~25
진도	☁️	20~24

목포	미물(고)	07:09 / 20:21
여수	미물(저)	00:22 / 12:18
	미물(고)	01:48 / 15:35
	미물(저)	08:11 / 22:58

북구, 18일 ‘다북다북 책축제’
일곡제1근린공원·일곡도서관

광주 북구가 주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책 읽는 여유를 제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북구는 오는 18일 일곡제1근린공원과 일곡도서관 일대에서 ‘다북다북 책축제’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북다북 책축제’는 주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추진해오고 있는 주민참여형 문화 행사다.

‘책과 함께 여는 북적북적한 하루’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축제는 지역 내 도서관·독서단체·마을공동체 등 15개의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해 풍성함을 더한다.

당일에는 공연, 체험, 동화, 놀이, 전시, 읽 등 총 6개의 마당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펼쳐져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펼쳐진다. 개막식에서는 문인 북구청장과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이 무대에 올라 감명 깊게 읽은 책과 이유를 소개하는 ‘내 인생의 책’ 퍼포먼스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윤용성 기자

“실제 고막이 느끼는 압력 VR로 재현”

광주과학기술원 AI융합학과 김승준 교수팀,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귀 내부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해 가상현실(VR)에서 대기압 변화를 사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혁신적 햅틱 시스템을 개발했다. VR 체험에 귀가 먹먹해지는 압력 감각까지 구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AI융합학과 김승준 교수(사진) 연구팀이 VR 헤드셋에 부착해 귀 내부 압력을 세밀하게 조절함으로써 대기압·수압 변화에 따른 귀의 먹먹함 등 실제에 가까운 환경 압력 감각을 구현하는 신기술 ‘이어프레스 VR’을 개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술은 고도가 변하거나 물속에 들어갈 때처럼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을 VR 환경에서 안전하게 재현할 수 있어, 기존의 시각·청각 중심 VR 체험을 한 차원 높이는 새로운 감각 인터페이스를 제시한다.

지금까지 VR에서 압력 변화를 사실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공간 전체의 기압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 제약이 컸다. 연구팀은 임상에서 고막과 중이(中耳)의 압력을 검사할 때 쓰이는 티파노메트리 기술을 응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

김승준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기존에 구현하기 어려웠던 환경 압력 변화를 귀 내부 압력 제어를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한 혁신적 기술”이라

며 “VR·AR·원격 작업·훈련 시뮬레이션 등 미래 기술 전반의 사용자 경험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GIST AI융합학과 김승준 교수가 지도하고 강성준·김광빈·김보현·박정주·신세무 연구원 등이 참여한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한국연구재단(NRF)의 지원을 받았다.

연구 결과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상호작용 기술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 학술대회 중 하나인 ‘ACM UIST 2025’(9월28일~10월1일, 부산)에서 발표됐으며, 현장 시연 부스를 통해 ‘이어프레스 VR’을 직접 체험한 방문객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GIST는 이번 연구 성과가 학술적 의의와 함께 산업적 응용 가능성까지 고려한 것으로, 기술이전 관련 협의는 기술사업화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주민과 함께하는 ‘슬로우 조깅’ ‘우리의 한걸음이 충장을 밝힌다’ 주제로 13일 오후 장동로터리 하늘마당 광장 일원에서 열린 주민과 함께하는 ‘슬로우 조깅’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힘차게 출발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지역 지자체 상대 해킹 시도 해마다 반복

개인정보 유출사고 없어

광주·전남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국회의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해킹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광주·전남 지

자체에서 발생한 해킹 시도는 4289건(광주 1179건·전남 311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57건(광주 707건·전남 850건), 2023년 1343건(광주 287건·전남 1056건), 지난해 1389건(광주 185건·전남 1204건) 등이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642건(광주 133건·전남 509건)의 해킹 시도가 발생했다. 다행히 광주·전남 지자체에서는 해킹 시도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는 일

어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 시도를 유형별로 나누면 시스템 권한 획득 1435건, 정보 유출 1164건, 비인가 접근 시도 596건, 홈페이지 변조 508건, 정보 수집 241건, 악성코드 233건, 서비스 거부 112건 등으로 확인됐다.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한 해킹 시도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총 2900만여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고, 2022년 800만여건, 2023년 942만여건에서 지난해 1159만여건으로 폭증했다. 특히 서울과 충남 지자체에 대한 해킹 시도가 전체 90% 이상을 차지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 1004섬 신안 신의도 찰나를 담다!



광남일보 iTV 프로그램



● 호국와 자초의 성지, 전남 두륜산 대동사

● 나주지역 포교의 중심도량 덕룡산 불희사

광교 · 시청문의 062)370-7077



수입차 정비전문 특급업체 - (주)에스지모터스

... 최고수준의 전문 기술력과 정비서비스 / 최신시설 셀프세차까지 ...



www.blog.naver.com/k391054



수입전차종 일반 정비 및 판공·도색

- 선진국형 친환경 수송성 도장 시스템
- 수입차 정비 전문교육 이수

사고수리·편진오일 등 소모성 부품교체

